



그 해 여름

| 김대영

주요 등장 인물 소개

박혜미<31세. 지체 장애인으로 공공근로 정책을 통해 구청에 입사, 1층 안내와 폭염대피소 운영을 맡고 있음.>, **이종석**<팀장. 박혜미의 직속 상사. 무뚝뚝하고 말수가 없는 편이나 성실하게 일하는 박혜미를 묵묵하게 지원해준다.>, **포목할머니**<인근 시장에서 포목점을 운영하다가 가게를 접고 요즘은 친구들과 구청 폭염대피소에 들르는 것이 중요한 일과 중 하나.>, **장씨할배**<성미가 급하고 호통부터 치는 성격이라 곁에 사람이 없다>

시놉시스

연일 폭염주의보가 발령되자, 혜미가 일하는 구청에서 1층 안내공간을 비워 폭염대피소를 운영하기로 한다. 이종석 팀장은 1층 안내와 같이 보조적인 역할만 하던 혜미에게 폭염대피소 운영을 맡긴다.

혜미는 자신이 장애인이라 폭염대피소 운영이 매끄럽지 못할까봐 걱정했지만 정작 문제는 다른 곳에서 터진다. 대피소 정원보다 훨씬 많은 숫자의 어르신이 몰리면서 대피소 의자 쟁탈전이 벌어진 것이다.

지인을 동원해 서로 자리를 맡아주며 하루 종일 대피소에서 보내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밖에서 하염없이 기다리다가 시원한 바람 한 번 쐬지 못하는 분이 생기자 혜미와 이팀장은 고민에 빠진다.

연일 갈등이 반복되자, 포목할머니와 친구들은 슬쩍 혜미에게 음료수와 선물을 내민다. 폭염대피소 문이 열리기 전에 직원인 혜미가 자신들의 자리를 미리 맡아줬으면 하고 청탁을 한 것이다.

생전 처음 청탁을 받은 혜미는 그간 누군가에게 자신의 처지를 설명하고, 배려를 해주기만 바랐던 지난날들을 떠올린다. 혜미는 부정부패라는 것이 꼭 물질적인 욕심이나 권력욕구 때문이 아니라 인정과 도리 때문에 발생할 수도 있다는 것을 깨닫는다. 나쁜 사람이 되기 싫어 약간의 융통성을 발휘한다는 것이 청렴을 깨트리는 요인이 될 수도 있는 것이다.

혜미는 마음을 다 잡는다. 누구보다 약자의 마음을 잘 알기 때문이었다. 그녀는 평생 약자로 살아왔기 때문에 공정함과 청렴이 얼마나 큰 가치인지 뼈저리게 깨닫고 있었다. 혜미는 자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면돌파를 선택한다. 혜미 자신의 자리조차 대피소 자리로 내놓고 하루 종일 서 있겠다는 약속을 하며 이 문제를 함께 해결하자고 회의를 연 것이다.

그 해 여름, 구청과 구민들은 함께 이 문제를 해결한다. 올바르고 공정한 방법으로 청렴이라는 가치를 지켜낸다.

이른 아침, 바쁜 걸음을 걷는 활기찬 사람들을 배경으로 페이드인. 사람들 사이로 혜미의 발이 보인다. 출근 하는 행렬 속의 하나가 되어 직장으로 향하는 것이 기뻐서 혜미는 바쁘게 발을 움직이는 와중에도 히죽 웃는다.

혜미 : (혼잣말) 내가 출근을 하다니.

구청 로비로 들어서는 혜미를 발견한 이종석 팀장은 혜미가 면접을 보러 오던 날을 회상한다. 혜미는 엄마 뺏속에서부터 팔다리가 뒤틀린 지체 장애인으로 태어났다. 혜미의 부모님은 작은 어촌 마을의 고만고만한 살림 중에서도 가장 가난한 형편에도 기어이 혜미를 학교에 보내셨다.

혜미 : 제가 어릴 때 마을 사람들까지 나서 그 형편에 장애인까지 가르치냐고 만류해도 부모님은 물러서지 않으셨어요. 배워야 사람 노릇하고, 배워야지만 직업을 가지고 세상에 섞여 살 수 있다는 것이 확고한 신념이셨거든요. 덕분에 저도 포기하지 않는 마음가짐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엄마의 헌신 덕분에 저는 대도시의 대학교로 유학까지 갈 수 있었습니다. 저 때문에 허리띠를 졸라매는 가족들을 생각하며 졸업했습니다. 사실 취직이 쉽지가 않고, 이렇게 면접을 보러 오라고 하는 곳도 거의 없었습니다. 저한테 기회를 주신다면 정말 열심히 하겠습니다.

간절한 혜미의 표정에 이팀장은 그녀의 이력서를 다시 한 번 살펴본다. 대학을 졸업한 후 꽤 시간이 흘렀으나 면접을 본 경험조차 거의 없었다. 혜미는 공공근로 정책 조건에 맞았고, 성적도 우수했다. 이팀장을 혜미를 팀원으로 뽑았다.

이팀장 : (회상을 끝낸 이팀장은 고개를 한 번 흔들고 앞을 바라본다.) 박혜미씨, 첫 출근 축하해요! (팀원들을 손짓하며) 모르는 건 팀원들한테 물어보면서 우리 한 번 잘해봅시다. 오늘부터 1층 전체 안내를 박혜미씨가 맡도록 하고 나머지 팀원들도 혜미씨가 적응할 수 있게 잘 도와주세요.

옷매무새를 가다듬은 혜미가 1층 출입구 근처로 걸음을 옮긴다. 태어날 때부터 다리에 기형이 있었기 때문에 그녀는 몸을 크게 휘청거리며 기우뚱 기우뚱 걸음을 옮겼다. 팀원들은 혜미의 눈치를 보며 슬쩍슬쩍 그녀의 걸음걸이를 걷는질 했다.

혜미 : (활짝 웃으며) 어서오세요. 00구청입니다!

민원인1 : 지방세 내는 곳이 어디죠?

혜미 : 네, 3층으로 올라가셔야 합니다. 왼쪽으로 꺾으시면 엘리베이터가 나올 거예요.

민원인1 : (혜미의 어눌한 발음에 짜증을 내며) 아우, 좀 큰 소리로 말해야지. 뭐라고요?

팀원1: 안녕하세요? 제가 다시 안내해드릴게요.

헤미는 팀원1에게 얼른 눈짓으로 감사인사를 한다.

민원인2 : 아이고, 몸도 불편한데 돈 버느라 고생 많네.

헤미 : (난처한 듯 웃으며) 아닙니다.

민원인2 : 아니긴 뭐가 아니야. 참 요즘 사람들이 본 받아야 해. 요즘엔 그저 쉽게 돈 벌려고들 하는데 돈 버는 일에 쉬운 일이 어
뵈겠어. 움직일 수만 있으면 나와서 돈 벌어야지. 잘하고 있는 거야. 몸 불편해도 이렇게 나와 일하니 얼마나 좋아.

헤미 : 네, 감사합니다.

이팀장과 팀원들은 헤미를 안쓰럽게 바라보지만 헤미는 씩씩하게 헤쳐 나간다. 그렇게 헤미가 고군분투하는 동안 한여름이 되
었다. 이제는 일에 적응을 한 헤미. 팀원들과도 많이 친해져서 함께 점심식사를 하러 간다.

팀원2 : 아참, 다들 그거 들었어요? (고개를 가웃거리며) 뭐였더라? 그 무더위 대피소였나?

이팀장 : 폭염대피소 말인가요?

팀원2 : (반색하며) 네, 맞아요! 1층에 폭염대피소가 생긴다던데 진짜예요?

이팀장 : 소문이 빠르네요. 네, 맞습니다. 이번 주에 준비가 끝나면 다음 주부터는 운영을 시작할 것 같습니다.

팀원1 : 폭염대피소까지 운영하면 일이 많이 늘어날 텐데...

이팀장 : 네 맞습니다. 이미 많은 일들이 포화상태니 이번 폭염 대피소 운영은 전적으로 박헤미씨에게 맡겨보면 어떨까 합니다.

헤미 : 네? 제가요?

팀원1 : 하긴 이제 헤미씨도 온지 꽤 됐지. 자신만의 업무를 맡을 때가 됐어.

팀원2 : 그렇긴 하지만... 폭염 대피소면 여러 사람들이 많이 왔다갔다 할텐데 헤미씨 괜찮겠어요?

헤미 : 솔직히 말하면 잘 모르겠어요. 제가 잘 할 수 있을까요?

이팀장 : 그 동안 헤미씨 일하는 거 보면 잘 할 수 있을 거예요. 뭐든 지금처럼 성실하게 배워서 하려는 자세만 있으면 못 할 일
이 없어요.

팀원1 : 그건 팀장님 말씀이 맞아요. 언제까지 헤미씨도 다른 직원들 일을 보조만 할 수는 없지. 이번 기회에 한 번 전적으로 담
당해서 잘 해봐요. 우리도 여력 되는 대로 도와줄게요.

헤미 : 정말 감사합니다. 열심히 해 볼게요.

헤미와 동료들이 여분의 플라스틱 의자를 1층에 배치하고, 정수기도 여러 대 옮기는 중이다. 각 부서에서 지원한 책도 있고, 예
어컨 바람을 넓게 퍼트릴 선풍기도 곳곳에 있으니 시원한 대피소가 되었다.

헤미 : (헤미가 거울을 보며, 연습을 한다.) 후, 다시 한 번 해보자. 안녕하세요? 폭염대피소입니다. 선착순으로 자리에 앉으시
면 됩니다.

팀원2 : 헤미씨, 아까부터 무슨 연습을 그렇게 해요? 너무 긴장한 것 같은데.

헤미 : 처음으로 저 혼자 맡은 일인데 실수라도 할까봐 걱정이 많아서요.

팀원2 : 무슨 걱정이 그렇게 많아요? 헤미씨, 이제 일도 익숙하고, 괜찮아요.

잔뜩 굳어진 헤미의 얼굴이 조금 편안해진다. 9시 정각이 되자, 대피소 문이 열리고 어르신들로 꽉 찼다. 발 디딜 틈도 없게 되
자 바닥에 주저앉는 분들도 계셨다. 그래도 들어오지 못한 분들이 부지기수였다.

장씨할배 : 이거 뭐여? 왜 자리가 없어? 아 우리 바닥에 앉으란 말이여?

높은 고함 소리에 헤미가 화들짝 놀라며 달려간다.

헤미 : 자리가 부족해서요.(우물쭈물하며)저기..자리가 선착순이라서...

장씨할배 : 아니, 그게 무슨 말이여? 먼저 온 사람은 덩고 나중에 온 사람은 안 더워? 다리 아파 빨리 못 걸으면 시원한 바람도
못 쐬는 거여?

헤미 : 아니요, 어르신 그게 아니라요....

문밖에서 왜 우리는 자리를 주지 않느냐는 다른 어르신들의 원성에 헤미의 정신이 아득해진다. 불만 민원이 폭주하자, 어렵게
얻은 일자리를 잃을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엄습했다. 선착순으로 자리가 차면 더는 받을 수 없다고 안내해드려도 어르신들
은 요지부동이다.

자리 없는 할아버지1 : 아니, 구청에서 일처리를 왜 이렇게 하나? 자리를 넉넉하게 만들어야지. 누구는 폭염 대피를 하고 누구
는 못 한다는게 말이 돼?

헤미 : 죄송합니다. 자리가 날때까지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자리 없는 할아버지1 : 앵무새처럼 죄송합니다만 하지 말고 자리를 만들어서라도 내야지. 이럴 거면 폭염 대피소 운영한다고
온 동네방네 광고는 왜 했어?

이팀장 : 죄송합니다. 어르신. 헤미씨는 잠깐 쉬어요. 내가 여기 좀 일일게요.

이팀장이 그만 가보라고 손짓하자 헤미는 화장실로 뛰어가 울음을 터트린다. 찜통 같은 더위에도 무작정 차례를 기다리며 대
기하시는 어르신들을 그냥 보고만 있을 수도, 그렇다고 들어오시라고 할 수도 없었다. 팀원들은 대피소 관련 민원을 처리하느
라 녹초가 되는 장면을 마지막으로 페이드아웃.

웅성거리는 할머니들 사이에서 의기양양하게 대피소를 둘러보는 포목할머니. 포목 할머니 걸으로 친구들이 동그랗게 대열을
만들어 의자를 차지하고 앉아있다.

포목할머니 : 내 말이 맞지? 줄서서 기다리면 언제 자리 날지 몰라. 한 명이 먼저 와서 의자를 다 맡아 뒤야 해. 그래야 모두 앉을 수 있어.

할머니친구1 : 맞아. 맞아. 화장실 갈 때도 무조건 다른 사람 의자를 맡아야 해. 아무도 못 앉게 해야지 까딱하면 자리 뺏긴다니까.

포목할머니를 둘러싼 할머니들이 모두 고개를 끄덕인다.

포목할머니 : 아, 요즘 여기 앉아 시원한 바람 쐬면 전기세 절약하고 좀 좋아. 자네들 얼굴도 보고. 이야기도 나누고. 괜히 밖에서 돈 쓸 필요가 없어.

할머니친구2 : 아이고, 있는 사람이 더 하다더니 너는 바로 작년까지도 돈 벌고 포목점도 돈 받고 팔아 놓고 돈 타령이야? 아무리 그래도 우리끼리 이렇게 의자 차지하고 앉아 있어도 되는지 모르겠다. 밖에 줄이 길던데. 다 같은 처지끼리 이래도 되는 원. 우리 늙은이들끼리라도 이런 자리 나눠 앉아야 하는 거 아니야?

포목할머니 : (표정이 사나워진 채로) 그럼 넌 일어나서 집에 가. 네 자리 양보해주면 되겠네. 우린 천천히 놀다가 점심 먹고 갈 테니 넌 그만 가봐. 애들아, 내가 오늘 저번에 이야기 한 그 칼국수 집 가보자. 내 살게.

할머니친구2 : 아...아니 내 말은 그게 아니고. (포목할머니의 섹직한 표정을 보던 할머니는 금방 주이 들어 입을 다문다.)

할머니무리를 한참 바라보던 장씨할배가 소리를 뻑 지른다.

장씨할배 : 아, 전세 냈어요? 길게도 앉아 있네. 내 참. 여기 줄 선거 보이지도 않나?

포목할머니 :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람. (고개를 아예 돌려버린다.)

장씨할배가 씩씩거리며 가버리자, 다른 어르신들도 한 마디씩 보탠다. 다음 날 아침, 대피소 문이 열리자마자 장씨할배가 가장 먼저 뛰어들어온다.

장씨할배 : 어디 한 번 해보자고! (의자를 여러 개 붙여 다리를 올리며) 아, 누군 자리 맡을 줄 몰라서 안 한 줄 알어?

장씨할배가 맡은 의자들을 포목할머니 머리 뒤에 줄 서 있던 사람들에게 배분하자, 포목할머니가 몸을 뒤로 젖히며 화를 낸다.

포목할머니 : 아니, 이게 무슨 짓이에요? 내가 먼저 줄을 섰는데.

장씨할배 : 아 그쪽보다 내가 일찍 와서 자리 맡아뒀다가 주고 싶은 사람 주는데 무슨 문제? 그쪽도 어제 그렇게 했잖아.

헤미 : 저기...그러시면 안 돼요. 자리 맡으시는 거 하시면 안 돼요.

장씨할배 : 안 되긴 뭐가 안 돼? 저 할머니들 그렇게 하는 거 내가 다 봤어. 잔말 허지 말어.

포목할머니 : 아가씨가 여기 책임자야?

헤미 : 네? (이제야 깨달았다는 듯) 네. 제가 책임자예요.

포목할머니 : 음, 알겠어요. 좀 있다 다시 올게요.

포목할머니가 친구들을 데리고 사라지자, 헤미는 참았던 한숨을 토해낸다. 뒤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던 이팀장도 빠른 뒷목을 두드리며 눈살을 찌푸린다.

포목할머니가 수상쩍은 걸음으로 폭염대피소 문을 연다. 할머니 친구들은 그런 포목할머니를 숨기더라도 하듯 에워싸고 있다.

포목할머니 : (눈치를 보듯 주변을 힐금거리며)아가씨, 이봐요! 아가씨.

헤미 : 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포목할머니 : 도와줄 건 없고 여기 이것 좀 마셔봐. (사람 좋은 미소를 지으며) 더운데 얼마나 고생이 많아? 이것 좀 먹어봐.

헤미 : (곤란한 표정) 어, 아닙니다. 아니에요. 이런 거 받지 않도록 되어 있어요. 할머니들 나눠 드세요! 저는 정말 괜찮아요.

포목할머니 : 저기 그럼 이거라도 (남들 보지 않게 포장된 꾸러미를 스욱 헤미 책상에 올리며) 이거 우리가 돈 모아서 샀어. 아가씨 선물이야.

헤미 : 아닙니다. 선물 받으면 안 돼요. (꾸러미를 다시 할머니 가방에 밀어넣으며) 마음만 받을게요. 정말 감사합니다.

포목할머니 : 응, 저기 다른 게 아니라 여기 요즘 줄이 너무 심하더라. 우리 같이 무릎 아픈 할망구들은 자리 맡지도 못하겠어. 아주 꼭두새벽부터 줄을 서서 있더라고.

헤미 : 네, 요즘 좀 그렇죠?

포목할머니 : 응, 그래서 말인데 이거 받고 (선물을 다시 헤미 책상에 올리며) 우리 자리 좀 맡아줘. 아가씨는 문 열기 전에 이 안에 있을 거 아냐. 우리 좀 봐, 이 다리로 서서 줄 서지도 못해. 아가씨 같은 사람이 우리 같은 사람 사정 봐줘야지, 안 그래?

헤미 : (선물을 다시 할머니 가방 속에 넣는다.) 이러시면 안 돼요. 선물은 받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선착순이라는 규칙이 있어서 미리 자리를 맡아드리기도 어려워요.

할머니친구1 : 아유, 그러지 말고 사정 좀 봐줘요. 오죽하면 우리가 이러겠어요. 아무 한테도 말 안할테니 우리 자리만 좀 맡아줘요. 다리가 너무 아파서 그래. 노인네가 다리도 아픈데 이 더위에 어떻게 되면 아가씨가 책임질거야?

포목할머니와 친구들이 헤미를 둘러싸고 다들 한 마디씩 한다. 헤미의 곤란한 모습을 지켜보던 이팀장이 문 닫을 시간이 되었다고 할머니들을 밖으로 안내한다. 한숨 돌린 헤미가 땀을 닦고 있는데 이팀장이 돌아온다.

이팀장 : 이거 보통 일이 아니네요.

헤미 : 그러게요. (고개를 푹 숙이며) 휴, 내일은 또 어떻게 될지...

다음 날, 헤미의 책상에는 크고 작은 음료수들과 주전부리들이 쌓였다.

헤미 : 할머니, 저희 이런 거 받지 못하게 되어 있어요. 할아버지, 이 빵도 다시 돌려드려야 돼요.

헤미가 땀을 뻘뻘 흘리며 책상 위에 쌓인 선물들을 돌려주는 동안, 어르신들은 아랑곳 하지 않고 헤미에게 자리를 미리 맡아달라고 부탁한다.

할아버지1 : 나는 밖에서 박스 줍다가 오면 이 시간 밖에 안 돼. 줄을 설 수가 없다니까. 나 대신 자리 좀 맡아줘. 이거 마시고 자리 좀 맡아줘. 응?

할머니 : 내 자리도 좀 맡아줘. 내일부터는 여기 재밌는 영화도 틀어주고, 무슨 연주인가 뭔가도 한다며? 서서 어떻게 본대. 다른 데 갈 곳도 없고 여름엔 여기 있는 게 최곤데 내 자리도 좀 맡아줘. 그게 뭐 그렇게 어려운 일도 아니잖아.

헤미 책상에 주전부리를 올려둔 할머니와 할아버지들이 헤미를 붙잡고 하소연 하던 모습을 보던 장씨할배가 혀를 꼰꼰 찬다.

장씨할배 : 찻쫄, (눈을 반대 방향으로 돌리며) 저게 무슨 짓들이여? 낫살이나 먹고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지금 무슨 짓들을 하는 거여? 나이를 헛 먹었어. 애들보다도 못 허구만.

포목할머니 : 뭐요? 아니, 그러는 그쪽은 뭐가 그렇게 잘났어요?

장씨할배 : 못 나고 잘 나고가 무슨 상관이여? 이러니까 허구헌날 큰 일 터지는거여. 깨끗하고 청렴하게 하는 법을 젊은 애들한테 가르치진 못할망정 이게 무슨 짓들이여?

포목할머니 : 아니, 무슨 이런 작은 일에 청렴까지 나와요? 그냥 좀 사정 봐줘서 자리 맡아주는 게 무슨 대수로운 일이라고 그래요?

장씨할배 : 모르는 소리 말어. 작은 일을 깨끗하게 처리할 줄 알아야 큰 일도 깨끗하게 하는 것이여. 이렇게 곳곳에 그냥 규칙도 법도 없이 부정한 방법으로 해결하려는 사람이 넘쳐나니 무슨 일이 제대로 되었어? 떠들지 말고 반성이나 혀. 부끄러운 줄 알라고.

포목할머니 : 뭐라고요? 말 다 했어요?

포목할머니가 장씨할배에게 소리를 지르며 다가들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큰 싸움이 되지 않도록 말리기 시작한다. 그 틈에 또 다른 어르신들은 헤미를 붙잡고 청탁을 멈추지 않는다.

할머니2 : 이거 듀유 이거 내거야. 내가 놔둔 거야. 이거 마시고 내일은 내 자리 꼬옥 부탁해.

헤미 : 할머니, 안 돼요. 듀유 다시 가져가세요. 절대 안 돼요.

할머니2 : (큰 소리로) 아니, 이깟게 뭐라고 자꾸 안 된다고 해?

아수라장이 되자, 결국, 이팀장이 회의를 소집했다.

이팀장: (손으로 이마를 문지르며) 아, 머리가 너무 아프네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동료1: 와, 문제가 심각하네요. 나 참, 이런 일로 청탁을 받을 줄은 꿈에도 몰랐네요.

다들 고개를 끄덕거린다.

헤미: 전 언제나 다른 사람한테 뭔가를 부탁하는 쪽이었거든요. 나라에서 장애인을 위한 뭔가가 결정될 때나, 구청이나 복지센

헤미 : 전 언제나 다른 사람한테 뭔가를 부탁하는 쪽이었거든요. 나라에서 장애인을 위한 뭔가가 결정될 때나, 구청이나 복지센터에서 뭔가를 처리 할 때 그 사람들이 제 입장을 헤아려 최선의 결정을 해주길 바랐어요. 그래서 그 분들 마음은 이해가 가요.

동료2 : 그치. 마음은 이해 가지. 근데 그렇다고 그런 사정을 봐줄 수도 없는 일이잖아. 엄연히 규칙이라는 게 있는데 말이야.

동료3 : 그렇다고 언제까지 규칙 이야기만 할 수는 없잖아요.

동료2 : 그럼 뭐 자리를 맡아주라는 거야?

동료3 : 그건 아니지만...솔직히 하루 종일 밖에서 줄 서 있는 어르신들 보면 너무 마음이 불편하니까 그렇게라도 하고 싶은 심정이예요.

헤미 : 네, 맞아요. 저도 그렇게 해드리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아요. 그 동안 부정부패를 저지른 누군가가 뉴스에 나오면 그게 다 물질적인 욕심이나 권력욕 때문에 그런 줄 알았는데 꼭 그렇지만도 않은 것 같아요. 어쩌면 누군가한테는 별 일도 아닌 이 쉼터 자리 하나가 어르신들한테는 정말 간절하잖아요. 그 사정을 배려해드리려다 보면 인정과 도리 때문에 부정부패가 일어날 수도 있겠더라고요. 앓을 자리 하나 맡아 주는 것이 뭐 그렇게 큰일인가. 저렇게 몸이 힘드신 분이 부탁하는데 내가 뭐라고 그것 하나 못 들어준단 말인가. 유혹의 목소리가 저한테 막 속살거렸거든요. 어르신들의 간절한 부탁을 거절하는 내가 천하의 나쁜 사람이 된 것 같기도 하고요.

헤미의 말을 경청하던 사람들이 다 같이 고개를 끄덕이며 한 마디씩 보탠다.

이팀장 : 아이러니하게도 부정부패라는 것이 도덕적으로 옳은 것을 선택하기 위해, 약자를 배려하기위해 일어날 수도 있는 것이네요. 시골에 계신 우리 할머니 같은 분들을 보면 마음이 한층 더 약해지잖아요. 한 번쯤은 부탁을 들어드려도 괜찮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자꾸 들기도 하고.

헤미 : 네, 정말 그래요. 그래도 규칙은 규칙이고, 아주 작은 것이라도 청렴이라는 가치는 꼭 지켜야 해요. 저는 평생 약자로 살아왔잖아요. 그래서 약자의 마음을 잘 알거든요. 다른 사람들이 나를 공정하게 대해주기를 간절히 기대했으면서 이제와 불공정한 결과를 만드는 사람이 될 수는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팀장 : 헤미씨 말이 맞아요. 작고 사소한데서 청렴의 가치가 지켜지지 않으면 크고 무거운 일도 쉽게 무너질 수 있는 거죠. 어떻게 하면 규칙을 지키고 공정하게 처리하면서도 어르신들을 배려할 수 있을까요?

모두들 골똘히 생각에 잠긴다.

헤미 : 제가 내일 제 자리를 쉼터 공석으로 내 놓으려고요.

동료1 : 아니, 그럼 헤미씨는 어디에 앉으려고? 안 그래도 좀 서 있으면 다리 아픈 사람이.

헤미 : 괜찮아요. 이 사태를 해결하려면 뭐라도 해야죠!

다음 날, 헤미는 어르신들의 부탁을 거절하는 대신, 헤미 개인의 의자를 어르신들이 앉을 수 있게 내놓았다.

자리에 앉은 할머니1 : 아유, 하루 종일 서있는구만. 다리 안 아파?

헤미 : 네, 괜찮아요.

자리에 앉은 할머니1 : 괜찮긴 뭐가 괜찮아. 성한 사람들도 이렇게 서 있으면 얼마나 다리 아픈데.

그러자 어르신들은 종일 서 있는 헤미를 흘금흘금 본다. 헤미에게 말을 걸던 할머니가 잠깐이라도 앉으라고 당신의 자리를 양보하신다.

자리에 앉은 할머니1 : 여기 잠깐이라도 앉아요. 내가 서 있을 게. 이 의자에 돌아가면서 앉아요.

헤미 : (그때를 놓치지 않고) 혹시 저 대신 밖에서 대기하시는 다른 어르신들이 잠깐이라도 더위를 피하도록 양보해주실 수 있을까요?

헤미 말을 들은 어르신들은 잠깐 서로를 바라보다가 밖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 당신의 자리를 잠깐씩 대어해주신다. 덕분에 더위에 지친 어르신들이 잠시라도 찬바람을 쐐셨다.

밖에 서 있던 할아버지1 : 아유 시원하다. 시원해. 여기는 천국이네. 고마워요. 내 자리 양보해주기가 참 쉽지 않은건데.

밖에 서 있던 할머니1 : 그러게요. 하루 종일 줄 서다가 그냥 집에 가는 날이 부지기수였는데 다들 고마워요. 이렇게 자리를 양보해주고 내 빨리 찬 기운만 좀 쐬고 일어날게요. 고마워요.

연신 고맙다고 인사를 하는 사람들을 보며 안에 앉아 있던 사람들은 겹언쩍어 한다. 그렇게 며칠을 보내자, 잠깐씩 자리를 양보해주는 분들이 더 늘어났다.

이팀장 : 이 일을 지혜롭게 해결할 방법을 찾았네요. 조금만 배려하고 양보하면 다 같이 돌아가며 더위를 피할 수 있는 거였어요. 헤미씨, 아이디어 좋았어요!

이팀장의 칭찬에 헤미가 쑥스러운 듯 목을 긁적인다.

그때부터 폭염 대피소는 선착순으로 맡은 자리를 집에 돌아갈 때까지 차지하는 대신,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바깥에 서 있는 사람과 돌아가며 앉기로 했다. 짝이 된 어르신들은 일정 시간이 지나면 자리에서 일어나 찬바람을 양보하셨다.

아침 회의 시간, 커피를 마시던 헤미가 먼저 입을 열었다.

헤미 : 여러 어르신들 덕분에 청탁을 받지 않고도 더 많은 분들이 공정하게 더위를 피할 수 있게 돼서 정말 다행이에요. 한 사람이 뒤에서 몰래 편법을 쓰거나, 불공정한 방법으로 사태를 해결하는 것보다 모두가 힘을 합쳐 공정하고 정의로운 방법을 찾는 것이 훨씬 결과도 좋고, 보람도 있네요.

이팀장 : 헤미씨가 고생 많았어요. 이번 일을 겪으면서 저도 생각을 많이 하게 됐어요. 청렴이라는 게 항상 거창한 일에만 쓰이는 말이라고 생각했는데 청렴을 지킬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일상에서 청렴이 가진 가치를 깊이 이해하고, 생활화 하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순간의 욕심이나 아차 하는 유혹에 흔들리는 게 사람이니까요. 조금이라도 일을 빨리 해결하거나 편하게 해결하려고 청렴을 희생시키는 일도 순식간에 일어날 수 있겠더라고요.

동료1 : 맞아요. 우리도 사실 마음이 많이 약해졌었잖아요. 어르신들 하고 눈 마주치는 것도 힘들고. 인정에 이끌려 이번 한 번쯤 하고 눈을 감는 그 짧은 순간에도 청렴의 가치는 땅에 떨어지고 부정부패에 가까워지게 돼요. 헤미씨가 저번에 이야기한 것처럼 누구나 공정한 대우를 받고 싶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청렴을 체화해야 되는 것 같아요. 순간순간 옳은 판단을 내릴 수 있겠어요.

구청이 폭염 대피소 일을 해결한 과정이 입소문을 타고 다른 지역으로 퍼졌다. 규모가 작은 폭염 대피소를 운영하는 구청들은 비슷한 일로 골머리를 앓고 있었다. 헤미의 방법으로 일을 해결한 구청들에서 감사 전화가 오자, 이팀장과 직원들은 함박웃음을 지었다.

며칠 후, 시청에서 이팀장을 찾는 전화가 온다.

이팀장 : 네, 전화 바꿨습니다.

시청직원 : 안녕하세요? 이팀장님과 직원들이 폭염 대피소 문제를 해결한 이야기 들었습니다. 00구청이 이번 청렴 시민 상 후보에 올랐는데 수상 결정이 되어 연락드렸어요. 축하드립니다! 자칫 쉬운 길을 찾을 수도 있었는데 청렴하게 일을 해결해주셔서 여러 다른 구청에 본이 되셨어요.

이팀장 : 저희가요? (희미하게 웃는 얼굴로) 정말 감사합니다. (수화기를 내려놓으며) 우리가 청렴 시민 상을 수상했다고 해요!

이번 대피소 일을 청렴하게 해결한 덕분입니다. 다들 고생했어요.

팀원들 : (모두들 박수를 치며) 우와, 정말요? 진짜 기분 좋네요!

이팀장 : 오늘은 우리 뭐 시원한거라도 한 잔 하면서 자축합시다. 내가 한 잔 살게요!

팀원들, 밝은 얼굴로 박수를 치며 좋아한다.

며칠 후, 시청에서 시상식이 있는 날. 이팀장이 팀원들을 대신 해 대표로 수상을 한다.

시장 : 위 상을 00구청에게 수여합니다. 축하합니다! 어려운 시기일수록 기분을 지키고, 청렴이라는 소중한 가치를 지키려고 노력해야 하는데 00구청이 아주 좋은 모범이 되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00구청을 본 받아 작은 일도 청렴하게 수행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팀장에게 악수를 청하며) 다시 한 번 축하합니다.

이팀장 : (악수하며) 감사합니다!

구청에 도착한 이팀장, 팀원들에게 상장을 내보인다.

이팀장 : 모두들 고생 많았어요. 우리 모두가 받은 상이긴한데 구청장님이 우리 팀에 전시하라고 하시네요.

팀원들 모두 웃으며 장식장 위 상장을 바라본다. (다시 폭염 대피소)

이사 온 할머니1 : 아유, 시원하다. (옆에 앉은 할머니에게 소곤소곤 질문한다.) 그런데 왜 잠깐 앉았다가 다들 줄 서 있는 사람들 하고 자리를 바꿔 앉아요? 자리 맡았으면 죽 시원하게 앉아 있지들 않고?

포목할머니 : 그게 무슨 남을 배려하는 일이라나 뭐라나? 다들 더운 열기부터 뺄 수 있게 자리를 돌려가며 찬바람 말도록 앉는 방법이래요. 무슨 크게 도움이 된다고 그렇게들 까지 하는지. (썰쭉한 표정으로) 말은 대로 좀 앉아 있으면 될 걸 기어이 그렇게 해야 한답니다.

이사 온 할머니1 : 그래요? 그러기 쉽지 않을 텐데 사람들이 다 바르고 착하네요.

포목할머니 : 손해보고 사는 거죠. 그깟 자리 좀 말아 놓고 쉬면 어떻다고 난리인지 원.

이사 온 할머니1 : 손해요? 그게 결국은 다 같이 시원해지는 방법인 것 같은데. 길게 보면 손해가 아니라 오히려 이익 아닐까요?

포목할머니 : 아이고, 여기 손해 봐도 좋으니 양보가 먼저인 사람이 또 있네. (못마땅한 표정으로 돌아 앉으며 허리를 괜히 탕탕 두드린다.) 오늘따라 왜 이리 허리가 말썽이야.

폭염 대피소로 여러 명의 사람이 갑자기 몰려온다. 시끌시끌한 와중에 카메라 장비를 든 사람이 보인다.

조연출 : 안녕하세요? 저희는 MSK 방송국 “이웃이 좋다”에서 나왔습니다. 이웃끼리 배려하고 양보하시는 마음이 정말 좋아보이세요. 이번에 구청이 상도 받으셨다고 해서 저희도 촬영을 하러 나왔습니다. 그래서 촬영 동의서를 먼저 받으려고 합니다.

방송국 직원 여러 명이 동의서를 가지고 폭염 대피소에 있는 사람들에게 동의서를 받는다.

포목할머니 : (떨떠름한 표정으로)아니, 이게 뭐 방송거리가 돼요?

방송국 직원1 : 그럼요, 00구청 완전 유명해요. 요즘 세상에 이렇게 자기 자리 양보해서 이웃에게 찬바람을 나누는 곳이 어디겠어요? 저희가 꼭 인터뷰 하고 싶어서 구청에 여러 번 촬영 허가를 구했어요. 정말 어렵게 촬영하는 거라 저희도 실수하지 않으려고 다른 팀 사람들까지 전부가 다 나왔어요. 할머니 진짜 대단하세요! 어떻게 이렇게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고 계세요? 저 같으면 그렇게까진 못할 것 같아요.

그때, 카메라가 돌아가는 표시를 하는 카메라맨, 촬영중이라는 종이를 본 포목할머니가 갑자기 인자한 미소를 짓는다.

포목할머니 : 아, 뭐 대단할 게 있나요? 당연한거죠. 나라에서 다 같이 시원하라고 만든 곳인데 자리 말아 놓고 나 혼자 시원하겠다는 게 이기적인 마음이에요. 우리는 예전부터 그렇게 안 살았어요. 여기가 원래 다 착하고 바른 사람들이 사는 곳이야.

포목할머니의 인터뷰 내용을 들으며 다들 고개를 돌리고 몰래 쿡쿡 웃는데 장씨할배가 크게 웃음을 터트린다.

장씨할배 : 으하하하, 아이고 배야, 오래 살다 볼 일이네. 그 입에서 그런 말이 나오고.

연출자 : 췌! 아이고, 어르신 다른 어르신 인터뷰 할 때는 그렇게 크게 소리 내시면 녹화를 할 수가 없어요. 죄송하지만 조금만 도와주세요.

장씨할배가 알겠다고 고개를 끄덕이면서도 웃겨 죽겠다는 듯 배를 잡고 구르는 시늉을 한다. 그 모습을 보던 다른 어르신들도 같이 미소 짓는다.

포목할머니 : (혼자 중얼중얼) 아니, 뭐 내가 그렇게 하기 싫었다는 게 아니고. 이까짓 일이 뭐 그렇게 중요한 일인 줄 알았나? 중요한 일이라니까 나도 생각을 바꾸겠다는 거지.

조연출이 이팀장을 찾는다. 이팀장이 긴장한 표정으로 인터뷰에 응한다.

이팀장 : 처음엔 정말 고민이 많았어요. 정원은 정해져 있는데 대피소를 찾으시는 분은 많으니 진땀 좀 흘렸습니다.

조연출 : 그런데 어떻게 이런 방법을 생각해 내셨습니까?

이팀장 : (주위를 둘러보며 헤미가 어디 있는지 찾는다.) 사실, 이 방법을 생각해낸 직원은 따로 있습니다. 저기, 우리 구청 막내 박헤미씨입니다.

헤미 : (손사래를 치며)어머, 아니예요. 아니예요. 다 같이 생각해낸 겁니다.

헤미가 얼굴을 가리며 사양했지만 팀원들이 모두 박수로 헤미를 부른다. 떨리는 얼굴로 카메라 앞에 선 헤미.

헤미 : 다 같이 힘을 합쳐 찾은 해답이 우리 모두에게 더 좋은 결과를 가져다 줬습니다. 가장 바른 길이 결국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빠르고 편한 길이었습니다. 멀리보고, 넓게 보면 실은 옳은 방법, 청렴한 방법이 더 좋더라고요. 앞으로도 가장 옳은 방법으로 이웃을 배려하며 뜨거운 여름을 시원하게 보내게 되길 기대합니다. 폭염 대피소를 찾아주신, 그리고 청렴한 방법으로 서로를 배려해주신 이웃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헤미의 말이 끝나자, 대피소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박수를 친다. 녹화가 진행되는 와중에도 어르신들은 바깥에서 줄 서고 있는 어르신들과 자리를 바꾼다. 방송국 직원들은 그 과정을 빠짐없이 카메라에 담는다.

연출자는 2주 뒤 “그 해 여름”이라는 제목으로 인터뷰 방송이 나갈 거라고 구청 사람들에게 알려준다. 대피소에서 모여 다 같이 방송을 보자고 구청 직원들과 어르신들이 약속하는 장면으로 페이드 아웃.